세계적 인터넷 서점 Amazon서 순위권…

〈초기불교입문〉 영문번역자를 만나다

"美 명상 열풍 중심에 초기불교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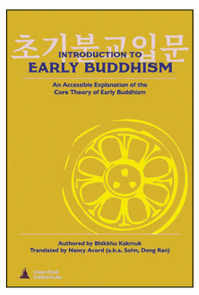
E-mail 특별 인터뷰 **재미교포 낸시 어코드**

한국말 서툴러도 불교는 잘 알아…
불교는 모태신앙, 조계사서 공부도
미국서도 쉼 없이 불교공부 정진해

초기불교 기본에 둔 응용불교는
현재 미국서 굳건히 자리잡아…
서양에 맞지 않는 체계는 없애고
부처님의 가르침만 미국에 정착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각묵 스님의 〈초기불교입문〉의 오디오북이 영어로 번역돼 구랍 28일 미국 현지에서 출판됐다. 출판 즉시 세계 최초 · 최대규모의 인터넷 서점 '아마존'에 입점했으며, 1월 18일부터 이 오디오책은 아마존의 '상좌부 불교(Theravada Buddhism)' 부문 인기 1위를 유지 중이다. 낸시 어코드(Nancy Acord, 한국이름 손동란)는 〈초기불교입문〉을 영문번역했다. 낸시 어코드는 자신이 평생 불자로만 살아왔다고 한다. 본지는 낸시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그녀의 불교 여정과 미국 현지의 불교계 상황에 대해 들어봤다.



'아마존'에서 초기불교 오디오북부문 1위를 유지 중인 〈초기불교입문〉영문판.

Q 한국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6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재미교포다. 대부분의 한국계 이민자들은 원활한 미국생활을 위해 커뮤니티가 더욱 활성화 된 기독교를 택한다. 어떻게 불교를 선택할 수 있었나?

A 대부분 이민자들은 기독교를 택하기에 미국에서 언제나 나 홀로 불자였다. 불교는 나의 모태신앙이다. 어린 시절, 집안에서 서울 아차산의 영화사를 지어 근처 전답까지 모두 포함해 스님들께 보시했다고 들었다. 사촌들도 절을 보시하기도 하는 등 집안이 불교에 푹 빠져 있었다. 나 역시 자연스럽게 어려서 할머니 따라 절에 다니고, 고등학교 때는 조계사 고등학생 불교모임에 참석하곤 했다.

Q 미국서 불교공부는 어떻게 지속했고, 어떻게 〈초기불교입문〉을 번역했나?

A 40여 년 미국에 살면서, 한국서 하던 불교 공부를 혼자 지속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일을 그만두고 초기불교를 접하게 됐다. 그리고 2007년, 50살이 돼 초기불교가 내 길이라는 확신이 생겼다. 이때부터 초기불교 경전을 읽고, 법문도 들었다. 이렇게 초기불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있던 중 각묵 스님과 인연이 닿았다. 그리고 2015년 9월부터 각묵 스님의 〈초기불교입문〉을 영문으로 번역하게 됐다. 현재는 세계 170국에서 영문판 전자책으로 출판됐다.

Q 미국서 현재 성행하는 불교의 종류와 그 인구는 얼마나 되는가?

A 미국에는 여러 종류의 불교가 들어와 있겠지만 특히 초기불교, 티베트불교, 북방불교(대승불교) 등이 성행중이다. 미국의 불자는 동양계 이민자 중심의 이민불교와 미국 엘리트 중심의 엘리트불교로 구분된다.

미국서 불자의 수를 정확히 헤아리기는 힘들다. 종교로 불교를 따르는 사람의 숫자는 많지 않지만, 불교 책을 읽고 명상하고 불법(佛法)강의를 듣는 사람의 숫자는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서점에서는 불교서적이 잘 팔리고, 명상센터 · 요가센터는 미국인으로 붐빈다. 미국에서 제일 잘 알려진 요가관련 월간지인 '요가저널'은 3천6백만 명이 주기적으로 요가와 명상을 한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이는 미국 인구의 11%에 해당한다. 또한 미국 국민이 요가와 명상에 쓰는 비용은 2016년 기준, 1년에 160억달러(한화 약 18조원)라고 발표했다.

Q 초기불교는 미국에 어떻게 전래되기 시작했나?

A 초기불교는 미국에 1800년대 말 쯤 소개됐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큰 인기를 끌지 못했고, 미국인들이 직접 동남아시아와 스리랑카에 가서 초기불교 교학과 수행을 배우고 돌아와 초기불교를 펼치면서 점점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이들 중에는 동남아시아나 스리랑카서 실제로 출가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다. 이 분들이 미국 초기불교의 선구자라고 생각한다.

이 분들이 불교를 미국으로 가져오면서 현지 정서에 맞는 합리적, 논리적, 상업적 방법을 선택했다. 이들은 '현생의 행복'에 중점을 뒀다. 부처님은 현생의 행복이 계와 보시, 그리고 자신에 어울리는 일을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다고 하셨다. 대부분 기독교와 친숙한 미국인들은 십계명이나 보시, 봉사에는 이미 적응돼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음챙김 수행'을 더한 것이다.


〈초기불교입문〉을 영문판으로 번역한 낸시 어코드.

Q 현재 미국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마음챙김'이 초기불교에서 유래했다는 것인가?

A 그렇다. 미국사회에 굳건하게 자리잡은 마음챙김 명상 · 요가 등의 응용불교는 초기불교에 기본을 두고 있다. 초기불교를 전파하던 사람들이 처음 불교를 전파할 때, 남방불교를 아시아에서 있는 그대로 미국으로 가져오지 않았다.

미국에 어울리지 않는 종교체계, 전통, 풍습 등은 전부 빼고 부처님의 가르침만 미국에 정착시켰다. 종교라기보다는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가르침으로. 이런 관점에서 마음챙김은 쉽게 가르칠 수 있고, 빠르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서 상업화가 가능했다. 이렇게 마음챙김이 상업화 됐고,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프로그램을 팔아 더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었다.

사실 응용불교를 이해하는데 초기불교를 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 마음챙김 명상이 초기불교 수행법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서 초기불교는 현대인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가르침으로 존경받는 추세다.

Q 앞으로 미국에서 불교의 발전 가능성과 방향성에 대해 예상한다면?

A 오늘날 마음 챙김 명상을 가까이 하며 자라는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고 거기서 답을 찾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부터 불교 수행의 기본이 갖춰진 국민들이 많아질 것이고 미래에 불교를 진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 때나, 무료로 편하게 잠시 수행하고 초기경전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져야 한다. 그런 공간이 동네마다 생기면 스님과 재가 지도법사들이 가르칠 곳이 많이 생길 것이다. 많은 불자들이 함께 초기불교의 선구자가 돼 행복을 찾고 주위에도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기를 기원한다.

中옥불사 성도재일 납팔죽으로 '훈훈'

2009년부터 지속된 연례 죽 나눔 행사

개시 전부터 불자들 문전성시
새로운 전통으로 자리매김…

중국 상하이, 옥불사서 성도재일에 진행한 납팔죽 무료 나눔에 옥불사 인근은 훈기가 가득했다.

'중국신문망'은 1월 24일 상하이 3대 사찰 중 한 곳인 옥불사(玉佛寺)에서 성도재일을 맞아 죽을 무료로 보시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옥불사는 1월 24일 오전 '함께 먹는 납팔죽(臘八粥), 함께 조화로운 길상한 해'라는 이름으로 성도재일 기념 죽을 절을 참배한 대중에게 무료로 보시했다. 납팔죽이란 납월 8일, 즉 성도재일에 먹는 죽이란 뜻으로 다섯 가지 곡식과 일곱 가지 과실을 넣어 만드는 귀한 음식이다. 기록에는 중국에서 불교가 가장 성행했던 당나라 때 절에서만 먹던 것이 송, 명을 거쳐 민간에까지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옥불사는 지난 2009년부터 성도재일 전후로 날을 잡아 납팔죽을 쑤어 산문에서 무료로 보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절에 보시한 시주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동시에 자비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한다는 취지다. "자비로써 세상을 구제하고, 사회와 대중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한 신심과 선행을 바르게 행하려 한다"고 옥불사 측은 전했다.

올해로 10년이 된 이 행사는 사회각계로부터 열렬한 성원을 받고 있다. 매년 성도재일을 기하여 옥불사에 와서 죽을 한 그릇씩 받아가는 것이 상하이의 새로운 전통이 되어가고 있다. 올해의 성도재일도 옥불사의 대중스님들이 직접 5천인분의 죽을 준비했다.

오전 9시 반. 죽 보시가 시작됐다. 이미 옥불사의 산문 앞엔 많은 불자, 시민, 관광객들이 일찍 와서 길게 줄을 서 있었다. 스님들은 한 그릇 한 그릇 정성껏 죽을 떠주며 "길상하십시오"라고 인사를 건넸다. 산문에서 보시가 시작됨과 동시에 옥불사의 납팔죽은 상하이 시내의 경로원과 사회복지원등에도 배달됐다.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 10대들, 卍에 푹 빠졌다!"



일본 10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만(卍)자는 춤이나 도시락에도 사용된다.

어린아이들 사진 구호로
여학생들은 SNS 사진에
"모양 귀엽고 발음 친숙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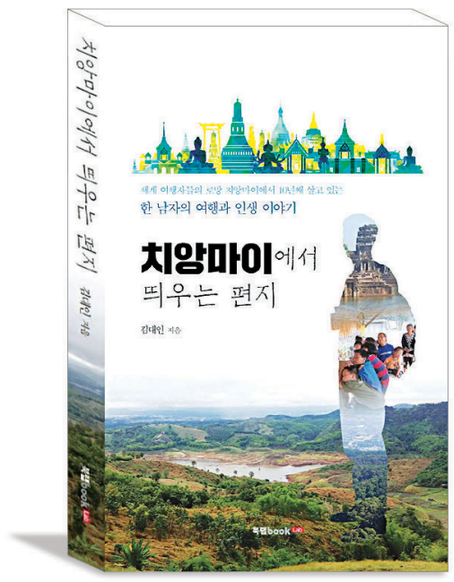
길상, 사찰, 또는 불교 그 자체를 상징하는 만(卍)자. 이 만자가 일본 청소년들의 SNS를 수놓기 시작했다. 미국 언론 '고타쿠'는 "만자가 일본에서 인기 있는 속어로 쓰이고 있다(The Buddhist Swastika Becomes Popular Slang In Japan)"고 1월 29일 보도했다.

만자는 일본어로 '만지'라고 발음되는데, 일본 어린아이들은 사진을 찍을 때 우리나라 아이들이 '김치'하고 말하는 것처럼 '만지'하고 말한다고 한다. 여러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도 한데, '흥분하기 쉬운 성격의 무례한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고, '상류층', '강해 보이는 사람' 등의 의미로 쓰인다.

하지만 만자가 가장 많이 쓰이는 의미는 따로 있다. 일본 말 중 '진짜?'라는 의미의 은어로 쓰이는 'マジ'는 만자의 일본 발음과 비슷한 '마지'라고 읽힌다. 여기에 착안, 만자도 '진짜?' '대단해' 등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일본 여학생들은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개인 SNS에 사진을 게시할 때 사진에 '卍' 스티커를 붙이는 일은 다반사다. 이런 유행은 학생들 사이에서 2016년부터 인기를 타기 시작해 가장 인기 있는 유행표현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도 여전히 그 인기는 식지 않고 있으며 만자를 활용한 춤, 도시락도 나오고 있다. '고타쿠'의 일본 현지 인터뷰서 한 10대 여학생은 "만자의 모양이 귀엽고 발음이 친숙해 많이 활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진형 기자



치앙마이에서 띄우는 편지

여행은 내가 아들에게 준 가장 큰 인생의 선물이다.

세계 여행자들의 로망 치앙마이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는 한 남자가
손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진짜 여행 이야기

여행은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을 만들어주고, 추억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한다. 해외여행이 흔하지 않던 시절, 저자가 아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더 큰 꿈을 꾸기를 바라며 함께 세계로 나가 여행했던 추억을 책으로 엮었다. 배낭에 반찬 통 몇 개를 넣고 '맨 땅에 헤딩'하듯 무작정 떠난 세계여행. 낯선 땅낯선 사람들과 만나 울고 웃고 또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어준 여행지에서의 체험을 이제는 일흔의 할아버지가 된 저자가 수십 자루의 볼펜을 바꾸어 가며, 아무런 기록 없이 기억에 의존해 생생하게 복원했다. 인생의 황혼기를 아름다운 치앙마이에서 보내며 아름답고 맑은 영혼을 가진 이들에게 많은 배움을 얻고 삶의 활력을 얻은 여행에 관해 쓴 에세이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현지의 리얼한 일상과 다양한 문화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 김대인 | 북랩 | 230쪽 | 값 14,500원

저자 : 김대인

저자 김대인은 1950년생으로 1989년 일본 자유 여행으로 첫 해외 여행을 다녀 왔으며, 1992년 초등학교 1학년 아들과 함께 배낭을 메고 세계 곳곳을 여행하기 시작하여 그 후로 자동차를 타고 육로로 동남아 여러 나라와 오지마을을 찾아다니는 자유 여행가이다. 2000년부터 태국 치앙마이에서 노후생활을 준비하여 현재 치앙마이에 거주 중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치앙마이의 매력과 오지 여행의 진가를 알려주고 싶은 두 손자의 할아버지이다.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고추구 12E 인지구 26E
LED전구 국산인증(정품)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제등행렬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바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법당용 12E 외곽용 26E ISO9001 ISO1400 전선플러그 연등승하강 장치

안전인증 ISO 9001 인증기업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